

# 한국축산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정 부 진

제일제당(주) 사료판촉과

1970년 11월 우리나라의 축산에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이었다.

**월간양계의 창간!**

잠을 자던 농촌이 그 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새로운 희망에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양간의 소는 한마리가 두세마리로 늘어나고 돼지는 구정물 대신 배합사료를 식사로 바꾸었으며 뜰을 거닐던 닭들은 케이지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잔치날만을 기다리던 동네 사람들은 그런날이 아니라도 고기를 먹게 되고, 아마 이들은 찢계란을 먹기 위해 소풍날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지 않아도 되었다.

**잠을 자던 농촌이 그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그동안 선배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축산은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밤낮없는 일에 손가락의 지문이 닳아 없어진 덕수아버지, 계사안에 침상을 만들어 놓고 닭과 생사를 같이 하던 새

남터 최씨아저씨, 여자 몸으로 경운기를 손수 운전하며 들판의 야초를 베던 함평댁의 눈물겨운 희생아래 오늘의 한국 축산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십수년 동안 우리는 축산인이 겪은 어려움은 차마 헤아릴 수가 없다. 그중에서도 작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황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차원에서 벗어나 흥망과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왔다. 이런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족처럼 아끼던 가축과 헤어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축산을 저주했던가?

근년에 들어 다행히도 지난날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개선의 소리가 하나 둘씩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지금 당장은 몇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은채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매듭은 열심히 노력하면 풀릴 것이고 방관하거나 나태하면 언제나 그대로 일 것이다. 우리 선배들은 이보다 몇갑절 더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오늘의 한국축산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농업속에서도 미미한 자리에 있었던 축산업이 오늘 이렇게 국가

산업의 한부분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축산업의 발달이 국가와 사회의 요소요소에 심은 공헌을 잠시 생각해 보자. 축산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소득은 증대되고 축산은 농촌경제의 지주가 되어왔다.

버려진 산지가 개발되어 국토의 이용성을 높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큰 공로였다. 국민의 체위는 향상되고 급기야 지난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는 모든 국민의 감동을 자아낸 경이의 성적을 거두지 않았던가!

### 매듭은 열심히 노력하면 풀릴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축산은 아직도 가야할 목표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축산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가축을 기르는데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최첨단 생명공학인 유전공학이 실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캡슐형 사료가 개발되고 질병이 전혀 걱정없는 이상적인 축산업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나라들. 축산역사 수백년의 그들을 단숨에 따라 잡으려는 것은 과욕이 되겠지만 그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노력은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너와 나만의 열심이 아닌 우리나라 축산인 모두가 사명감에 불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료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좋은 사료를 생산·공급해야 한다. 영양과 사료배합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익혀 사료를 만들고 고도의 사양관리기술을 사양가에게 전달해 주면서 판매에 앞서 고객의 서어비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약을 생산·판매하는 사람들은 연구소의 불빛을 벗삼으며 좋은 약을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 현재의 축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기에 사양가들의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정부 및 축산관련기관과 학계에서는 또 더욱 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십년, 백년 앞을 내다보는 식견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 축산인 모두가 사명감에 불타는 자세가 필요.

그리고 가축을 직접 기르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생산원가를 줄여야 한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수익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와 기술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축산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한다. 기계를 이용하여 성력화를 기해야 하고 능력이 우수한 종자로 개량해 나가야 하고 기록에 도전해야 한다. 높은 산이 있기에 거기에 오른다는 어느 등산가의 말처럼 우리 축산인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 축산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또한 축산이 자랑스런 본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축산을 하는 것이 다른 삶의 방편이 없어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풍토에서는 더욱 안된다. 자부심에 가득차 대대로 물려주는 전통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촌을 아끼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뿌린 씨앗, 흘린 땀을 그대로 수확하면서 삶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의논하며 현시점에서 무엇이 제일 요구되고 향후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내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다. 선배들이 온갖 눈·비바람치는 고난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는 그 과일을 개량해 나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자신들을 채찍질해야 되겠다. 나하나 보다는 이웃을, 더 나아가 한국축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힘차게 달려 나가자. 닭은 내일도 새벽 해를 칠 것이다.

월간양계와 함께!